

자전거 타고 벚꽃길 질주

임실군, 6일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개최 전국 동호인 1100여명 참가... 벚꽃축제 시즌2 예상

임실군이 처음으로 벚꽃과 자전거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보여줄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연다.

군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열린 옥정호 벚꽃축제에 이어 전국 자전거 동호인 1,100여명이 참가하는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오는 6일 성대하게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옥정호와 삼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개최하는 전국 최상위 자전거대회이다.

군은 지난 벚꽃축제에 이어 이번 자전거대회가 벚꽃 만개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앞선 축제 때 제대로 피지 않은 벚꽃 향연의 아쉬움을 달래줄 사

실상 '옥정호 벚꽃축제 시즌2'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참가 접수 5시간 만에 모집이 마감되는 등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군은 이번 자전거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스포츠·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회는 그란폰도(124km)와 메디오폰도(72km)방식으로 치러진다.

오전 7시 50분 임실종합경기장에서 개최식을 진행한 후, 8시에 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등 관내·외 11개 읍면을 경유하고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된다.

메디오폰도 72km는 성수 조치삼거리, 장수 산서, 오수 상신촌, 삼계 화정, 덕치 회문삼거리, 청웅 모래재를 넘어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게 된다.

또한, 그란폰도 124km는 메디오폰도 코스의 덕치 회문삼거리에서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 봉어섬 출렁다리, 운암 선거를 거쳐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임실군은 자전거대회가 임실군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경기 구간 내 포스트를, 잔석 등을 정비하고 도로 환경 정비에 힘썼다.

임실군은 자전거대회가 임실군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3일 구림면 복지센터에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건립 추진 주민설명회

추진 상황 설명 등 의견수렴

순창군은 3일 구림면 복지센터에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군, 전북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구림면 이장협의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착공 전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은 미래마당, 모험마당, 하늘마당, 흙마당, 두근두근 그늘놀이, 꿈틀꿈틀 미래교육체험 등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을 갖춘 유아교육체험시설로 군 공약사업 및 전북 동부권역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도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125억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구림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에는 순창군-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 협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강해정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유아교육체험시설 조성은 유아에게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 본격

182억 투자, 물놀이시설 및 숙박동 조성... 관광 활성화 기대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 내 민간사업 부지에 건설 중인 물놀이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청신호를 알렸다.

군은 지난해 11월 (유)에스에스알과 1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 뒤, 지난 1월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3월 초에는 건축 인허가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및 타설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순창읍 백산리 1010번지에 위치한 이번 물놀이 시설은 총면적은 1만672㎡(3,228평)에 달하며, 이곳에는 450m 길이의 유수풀을 비롯하여 다양한 슬라이드, 물놀이조합놀이대, 유아용 풀, 온수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인접 부지인 백산리 1009번지에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43개의 숙박동이 조성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레저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순창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번 복합 레저시설 조성을 통해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써 그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자치도 사격연맹 임원 4명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사격연맹 임원 4명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임실군에 고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사격연맹 고상철 회장, 김장근 부회장, 임병연 부회장, 김학로 이사가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이 임실군 청웅면에 위치하여 2021년 고상철 회장이



고상철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격 종목 발전을 위해 종합사격장 운영,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 주신 기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사격 종목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 활용 당부

남원시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의 무단 위·변조 방지, 계약서 및 인적서류 등의 분실과 도용 방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계약은 문서가 전자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분실위험이 없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람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신분확인을 확실하고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무단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주

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최대 0.2%p)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비우체 지원(2024년 3월 현재 조기 종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현재 공인중개사(또는 부동산 중개인)를 통해서만 가능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자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관해정 민원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로 매매·전세자금 우대금리 혜택 등도 누리시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광한루원 광장·서문 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남원시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을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주차로 확대,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해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주소지가 남원시인 사람은 1시간 이내 면제 조항을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차시 면제로 변경해 2시간 동안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객 편의 및 주변 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하였다. 광한루원 주차면 수는 총 222대(서문 130, 광장 88)로 전기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8대도 상반가내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불 특별대책 추진

남원시는 최근 기온상승과 강풍특보 발령 등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산불 재난 국가위기관리 '주의' 단계가 발령되며 불철산불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원지역 산불보호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4월은 최근 10년(2014~2023년) 대형산불의 44%가 발생했고 특히, 2022년에는 대형산불 11건 발생(최다), 2023년에는 대형산불 5건이 동시 발생(최초)할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올해는 4·10 총선이 있어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평년에 비해 고온건조, 강풍 등 이상기후가 관측되며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이 높아져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추진하여 읍면동 공무원 소각대응반을 구성해 관내 소각행위 대응 단속 및 계도,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희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만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의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